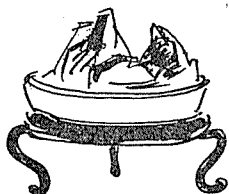


평균수명(平均壽命) 은 어떻게 변할가

■ 許 程



40년대엔 평균수명 40세

작년에는 1970년도에 실시된 인구 동태조사(人口動態調査)자료의 분석 결과 우리 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꽤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발표되어 화제를 모은 일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65세가 되어 남자는 63세, 여자는 67세로 늘어나 약 30년 전에 비한다면 25년 정도는 더 오래 살게 되었다.

일제시대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제대 의학부에서 위생학 교수(衛生學教授)이었던 『미즈시마(水島)』 교수의 추계에 의하면 1940년 당시의 우리 나라 평균수명은 약 40세였으며 1살안에 죽는 영아 사망

율(嬰兒死亡率)은 1천명의 출생아 중 약 200명꼴로 사망했다.

그후 1954년에서 1959년 사이에 전국 농촌을 표본으로 조사한 자료에서 보면 1년동안에 사망하는 영아 사망율은 약 80으로 떨어졌다.

또 다시 1964년에 서울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보면 약 40으로 떨어져 영아 사망율에 관한 한 우리도 후진국을 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또한 평균수명도 1960년경에 이미 50세를 돌파한 후 계속 늘어나 인생 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는 말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확실히 우리 나라는 오늘날 전통적인 예방 가능한 전염병의 유행과 그 피해로부터 소위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정신병,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및 암(癌) 같은 비전염성질환이 계속 늘어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한편 1940년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과거 30년간에 개발된 의료기술과 공중보건학의 발전은 1940년까지 과거 200년간에 개발된 의학내용을 능가한다고 외국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30년 후엔 80세 돌파 될것

따라서 앞으로 30년간에 얻을수 있는 업적은 더욱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평균수명이 최소한 생리적수명에 가까운 80세에 육박하리라 전망된다.

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가

계속 급성전염병은 감소할 것이다.

14세기에 유럽인구의 3분의 1을 휩쓴 참혹한 흑사병(黑死病)의 유행이나 새로운 동방교역의 확대에 뒤따른 천연두의 유행같은 전염병의 유행은 옛말이 되어 그 자취를 감추게 되는 반면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장병 같은 고치기 어려운 노인병들이 많아질 것이다.

또한 생활정도가 높아지고 식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비만증, 당뇨병과 같은 비전염성질환이 계속 많아져 보건당국의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다.

종래의 위암이나 간암보다는 폐암이 많아지고 좋지 않은 악성종양(惡性腫瘍)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자식으로는 거의 손을 쓸 수 없었던 노인병에 대한 치료법이 일부 분 개발되어 부분적으로는 실용단계에 이르리라 짐작된다.

건강과 질병의 경계 불분명해진다

이렇게 평균수명이 늘어나 80세를 육박하게 되면 건강과 질병의 경계는 더욱 불분명해지며 개인의 건강관리와 보건행정은 모든 국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질병이 오래 끌고 만성화됨에 따라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의 수

효는 계속 줄어들어 소위 반건강, 반질병(半健康, 半疾病)상태의 사람들이 많아져 종래의 치료 위주의 의료로부터 예방위주의 건강관리로 변화되어 예방의학이 더욱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리라 짐작된다.

또한 제 1차대전을 통해 개발된 소독법과 제 2차대전중 많은 생명을 구해낸 살충제와 항생제의 발견에 맞먹을 수 있는 많은 의도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리라 짐작된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여러가지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도기술이 나타나게 되리라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노인문제가 크로우츠·업되고 60세 내지 65세에 직장을 떠나는 정년제도는 개정되리라 전망된다.

결국 앞으로 30년간은 과거 200년 내지 300년간에 이루어진 의도기술상 발전을 능가할 것이며 이렇게 개발된 의도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보급할 것인가 하는 의도기술의 실지 적용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보건 및 사회적과제 해결에 정부는 더욱 힘쓰게 되리라 믿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싶다.

〈필자=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의학〉

특집/미래의 의학